

신촌역, 윤동주 「사랑스런追憶」의 희망과 사랑*

- 윤동주 연구 · 14 -

김응교**

국문초록

이 글에서 윤동주 시 「사랑스런추억」을 새롭게 접근해 보았다. 특히 시에 나오는 장소를 검토해보며 새롭게 해석해 보았다. 조그만 정거장이 신촌역일 가능성을 찾아 보았다. 윤동주는 릿쿄대학에 입학했지만 자유를 찾기는커녕 제국주의에 빠진 학장의 지시로 머리를 깎고 군인처럼 지내야 했다. 그는 이 상황에서 그나마 숨통이 트였던 한국에서의 시간을 회상한다.

“아아, 젊음은 오래 거기 남아 있거라”라는 말은 영화의 마지막 자막 같은 분위기를 준다. 그나마 그가 누렸던 낭만과 자유는 조선땅, 그 작은 정거장에서 있던 순간이었다는 것을 암시한다. 마지막 행에서 「사랑스런추억」의 이항 대립의 내면이 확연히 보인다.

서울에 있을 때는 “봄이 오던 아침”(1연)이었는데, 도쿄에 와보니 “봄은 다 가고”(5연)라는 표현은 암시적이다. ‘봄이 오던 아침’을 즐기던 나를 “기차는 아무 새로운 소식도 없이”(4연) 멀리 실어다 주었다. 그나마 시내 산보를 하며 즐기는 등 산책자의 기쁨이 있었지만, 도쿄에서는 생활은 화사한 봄이다 지나가버린 의미없는 일상으로 느껴진 것이다.

의미없는 곳에서 윤동주가 할 수 있는 것은 궁극적인 ‘희망과 사랑’을 기

* 이 글은 사단법인 한국문학과예술연구소 주최로 2022년 11월 19일에 열린 정기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이다. 이 날 토론해주신 차성환 교수님(한양대)께 감사드린다.

** 숙명여대 기초교양학부 교수

다리는 것뿐이다. ‘사랑과 희망’이야말로 윤동주가 기다리는 ‘누구’이며, 사뭇 얼 베켓이 기다리던 그 고도(Godot)와 비교할 수 있겠다. “-아아 젊음은 오래 거기 남아 있거라.”는 표현은 시 전체에 비극적인 낙관주의, 혹은 잔혹한 낙관주의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문장이다. 신춘역(자료8)은 희미한 구원을 되새기는 토포필리아의 공간일 것이다.

윤동주는 5월 13일에 이 시를 쓰고, 10월에 교토 도시사대학 영문학과로 편입한다. 도시사대학에서 송몽규와 자주 만나면서 그는 점점 역사의 늪에 빠져든다. 어쩌면 윤동주는 이 시를 쓸 때 이미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의 말대로 ‘여기’에는 젊음이 없었고, ‘거기’에 젊음이 있었던 것이다.

주제어 : 윤동주, 사랑스런추억, 일본, 릿쿄대학교, 신춘역

1. 토포필리아

사람들이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환경을 어떻게 지각하고 경험하며, 환경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중요한 문제이다. 사람은 그저 공간에 거주하는 설치물이 아니다. 자기가 실존하는 공간과 끊임없이 끊임 수 없는 정서적 끈을 형성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이다.

토포필리아(Topophilia)에서 토포스(topos)는 장소를, 필리아(philía)는 사랑한다는 뜻이다. 영국의 시인 존 베퉈먼(John Betjeman, 1906~1984)이 이 단어를 사용했다. ‘특정 장소에 대한 특별한 사랑’을 뜻한다. 문학 작품에서는 화자가 특정한 곳에 대해 느끼는 감정을 표현한 용어다. ‘기억의 저장소’라고 해야 할 특별한 공간을 뜻한다.

토포필리아는 ‘장소애’(場所愛)로 번역하기도 한다. 투안이 쓴 『토포필리아』의 부제는 ‘환경 지각, 태도, 가치의 연구(a study of environmental

perception, attitudes, and values)’이다. 부제가 이 책의 내용을 요약한다. 이전에 장소에 대한 연구는 지리학적인 연구였는데 투안은 사람이 장소에 갖는 ‘중심’과 ‘정지’에 의미를 둔다.

공간 조직에서 ‘중심’과 ‘주변’이라는 관념은 보편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 사람들은 지상의 공간이든 우주공간이든 어디서나 자신을 중심에 놓고 파장처럼 멀리 퍼져나갈수록 가치가 줄어드는 동심원 지대(대체로 경계가 뚜렷한)를 구성하는 경향이 있다.¹⁾

장소란 〈이동 중 정지pause in movement〉 하는 곳입니다. 인류를 포함한 대다수의 동물들이 어떤 지점에서 멈추는 경우는 그곳이 바로 모종의 생물학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정지로 인해 그 장소는 우리가 느끼는 <가치의 중심지>가 됩니다. ²⁾

투안은 공간을 점유한 ‘사람’이 어떻게 ‘중심/주변’을 구분하여 의미화 하는지, ‘이동/정지’를 통해 어떻게 공간의 의미를 결정하는지 분석했다.

한 장소의 토포필리아에서 머물지 않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다. 이 글에서 살펴보려는 「사랑스런추억」에 등장하는 화자는 서울의 한 기차 정거장에서 도쿄의 하숙방으로 이동한다. 사랑하던 “한 장소를 떠나는 것은 그 장소에 속한 다른 모든 사람들을 떠나는 것이며, 우리의 자아를 구성하는 것은 우리의 기억뿐 아니라 우리를 기억하는 다른 사람들의 기억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장소’의 의미를 천착하는 것은 이 모든 이유들 때문이다.”³⁾

「사랑스런추억」에 대해서는 몇 가지 연구가 있는데, 집중해서 분석한

1) 이-푸 투안, 이옥진 옮김, 『토포필리아-환경 지각, 태도, 가치의 연구』, 에코리브르, 2011. 53쪽.
 2) 이-푸 투안, 윤영호 외 옮김, 『공간과 장소』, 사이, 2020. 58쪽.
 3) 김현경, 『사람, 장소, 환대』, 문학과지성사, 2015. 287쪽

글은 많지 않다. 이 시 한 편만을 집중해서 분석한 논문은 못 보았다. 당연히 논문 한 편에 한 편의 시를 분석할 필요는 없다. 사실 부분이라도 이 시에 대해 의미있는 분석을 한 선행논문으로 아래 몇 편을 제시한다.

김응교⁴⁾는 릿쿄대학 시절에 발표한 시 5편을 분석한다. 5편 중 「사랑스런추억」을 분석했는데 충분하게 분석하지 못했다. 이번 글에서 부족한 논의를 수정하고 보충하려 한다.

장철문⁵⁾도 주로 릿쿄대학 시절을 ‘운동주 후기시’로 명명하고, 그 타자인식을 중심으로 「사랑스런추억」도 분석한다. 앞선 논의보다는 더욱 세세하게 분석했기에, 이 글에서 필요한 부분에는 인용하려 한다.

정우택⁶⁾은 새로운 시각에서 운동주를 다시 읽는다. 아직 빈 곳이 많은 운동주 연구의 영역을 새로운 시각으로 채우는 시도는 반가운 일이다. 운동주와 오장환의 비교, 운동주와 서정주의 비교 등은 운동주 연구사에서 꼭 필요한 부분을 제시하여 돋보인다. 이 저서에서 「사랑스런추억」은 두 군데로 나누어 분석한다.

이제부터 서술될 이 글은 운동주의 시 「사랑스런추억」에 나오는 “서울 어느 쪼그만 정거장”이 어떤 곳일까, 추리해본 연구다. 앞서 발표한 즐고 「젊음은 오래 거기 남아 있거라」⁷⁾에서 이 시에 나오는 역시 신춘역이라고 썼지만 충분한 증거를 쓰지 못했다. 이 글을 통해 신춘역일 가능성을 제시하려 한다.

연구 대상은 운동주 시 「사랑스런추억」이다. 운동주는 사랑스런 추억이

4) 김응교, 「릿쿄대학 시절, 운동주의 유작시 다섯 편 - 운동주 연구 · 3」, 『한민족 문화연구』, 한민족문화학회, 2012.

5) 장철문, 「대문자 운동주와 저항성의 심도(深度)-운동주 후기시의 타자인식을 중심으로」, 『비교한국학』, 국제비교한국학회,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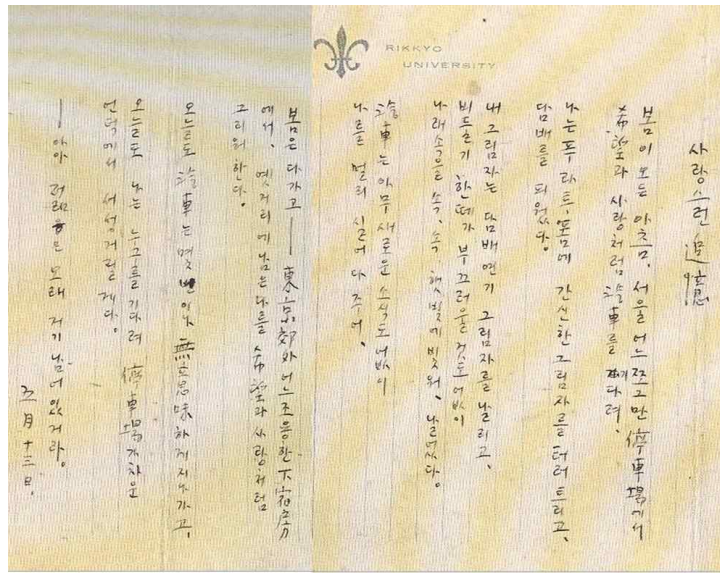
6) 정우택, 『시인의 발견, 운동주』,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21.

7) 김응교, 「젊음은 오래 거기 남아 있거라」, 『동아일보』, 2017.12.6.

있는 장소 곧 토포필리아(Topophilia)를 기억 속에 생성시키려 했다. 그 공간이 그가 지내온 의미있는 장소를 회감(回感)시키기 때문이다. 그곳이 어디일까, 그 특정 장소에서 윤동주는 어떠한 정조를 느꼈는지 이 글에서 살펴보려 한다. 이 연구를 통해 「사랑스런추억」을 해석하는 다른 가능성과 그 특정 장소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기를 원한다.

2. 릿쿄대학교에서 회상하는 서울

1948년 유고집『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초판본을 낼 때 네 명의 연희 전문 동창들이 힘을 모았다. 강처중, 유명, 김삼불 그리고 후배 정병욱이었다. 특히 강처중은 윤동주가 릿쿄대학 편지지에 써서 보낸 5편의 시를 보관했다.



자료1. 릿쿄대학 편지지에 실린 「사랑스런追憶」

강처중 덕분에 「힌그림자」, 「사랑스런追憶」, 「흐르는거리」, 「쉽게씩워진詩」, 「봄」 다섯 편이 시집에 실릴 수 있었다.

윤동주 스스로 선택한 19편의 시를 정병욱이 보관했고, 여기에 강처중이 보관한 12편을 합친 31편으로 『하늘과 바람과 시』는 출판된다. 이제 이 글에서 분석할 「사랑스런追憶」을 읽어보자.

봄이 오던 아침, 서울 어느 쪼그만 정거장에서
희망과 사랑처럼 기차를 기다려,

나는 플랫폼에 간신(艱辛)한 그림자를 떨어뜨리고,
담배를 피웠다.

내 그림자는 담배 연기 그림자를 날리고,
비둘기 한 떼가 부끄러울 것도 없이
나래 속을 속, 속, 햇빛에 비취, 날았다.

기차는 아무 새로운 소식도 없이
나를 멀리 실어다주어,

봄은 다 가고 — 동경(東京) 교외 어느 조용한 하숙방에서, 옛 거리에
남은 나를 희망과 사랑처럼 그리워한다.

오늘도 기차는 몇 번이나 무의미하게 지나가고,

오늘도 나는 누구를 기다려 정거장 가차운
언덕에서 서성거릴 게다.

—아아 젊음은 오래 거기 남아 있거라.

—운동주, 「사랑스런추억(追憶)」, 전문

어느 쪼그만 정거장을 그리며 운동주는 「사랑스런추억(追憶)」을 1942년 5월 13일 릿쿄대학교 편지지(자료1)에 쓴다. 운동주는 거의 모든 시에 시를 탈고한 날짜를 시 말미에 써놓았다. 운동주 시를 읽을 때 우리는 한 인간의 내밀한 비밀을 읽는 듯한 느낌을 얻는 이유는 시를 쓴 종이에 쓰여

있는 여러 정보들이다. 운동주의 릿쿄대학 학적부(자료2)를 보면 ‘소화 17년(1942년) 4월 2일에 문학부 영문학과’ 1학년으로 입학하여, 같은 해 12월 19일에 퇴학한 것으로 쓰여 있다. 그러니 「사랑스런추억」은 릿쿄대학에 입학하고 41일째 그러니까 한 달 열흘이 지난 시점에 쓴 시다.

자필원고를 보면 ‘사랑스런追憶’으로 붙여 썼다. 릿쿄대학 편지지에 쓰여 있는 시 5편, 「힌그림자」, 「사랑스런追憶」, 「흐르는거리」, 「쉽게 씌워진詩」, 「봄」은 제목이 모두 붙어 있다. 세로로 쓸 때 띄어쓰기를 확실히 안 한 것은 띄어쓰기가 없는 일본어의 영향이라고 단언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

備 徴兵關係	部 學 科 豫					學 籍 簿
	年 退學除籍 月 日	年 卒 月 日	年 入學 月 日	年 修了年級 月 日	年 入學年級 月 日	
(要 摘)	昭和十七年十二月十九日	昭和 年 月 日	昭和十七年四月二日	昭和 年 月 日	昭和 年 月 日	豫科 科 年入學
	學部英文學科 年	學部 學科 卒業	學部英文學科(選科) 年入學	豫科 科 年修了	豫科 科 年入學	豫科 科 年入學

자료2. 운동주의 릿쿄대학 학적부

제목에 ‘사랑’이라는 글자가 쓰여 있는데 운동주가 ‘사랑’이라고 썼을 때는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서시」)라는 다짐이 스친다. ‘사랑스러운’이 아니라 ‘사랑스런’이라고 줄여 썼기에 ‘추억’이 더 돌아보인다. 사라져가는 ‘추억’은 그에게 사랑의 대상이며, 늘 정답다.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자화상」)고, “별 하나의 추억”(「별 헤는 밤」)도 따스하다.

구두점으로 보면 이 시는 다섯 문장으로 이루어졌는데,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 서울에서의 ‘나’와 도쿄에서의 ‘나’로 나눌 수 있다. 마치 짧은 단편영화 같은 영상을 떠올리게 한다.

1연부터 3연까지는 봄날 서울 조그만 정거장에 있는 ‘옛날의 나’를 등장

시킨다. 4연은 서울과 도쿄의 어디인지 명확하지 않다. 4연과 8연은 서울이나 도쿄가 아니라 ‘플랫폼’이라는 이동성(mobility)의 장소일 수도 있다. ‘플랫폼’이라는 이동성은 디아스포라 혹은 난민의 특성을 보여준다. 이어 5연부터 현재 도쿄에 있는 장면이 나오면서 시의 도입부를 과거로 밀어낸다. 5연에서 장면은 도쿄의 어느 하숙방으로 전환된다. 8연까지 ‘일본에 있는 나’를 등장시킨다. 도쿄에 있는 현재 1942년 5월 13일 릿쿄대학교 영문학부 1학년 학생의 시점에서, 일본에 오기 전에 ‘서울 어느 쪼그만 정거장’에 서 있는 연희전문생 혹은 졸업생 ‘나’를 회상하는 작품이다.

“봄이 오던 아침”은 1942년 3월 윤동주가 일본 유학 가기 전일 것이다. 윤동주는 1942년 3월 봄날 부산을 떠나 4월 2일 도쿄 릿쿄대학에 입학했다.

“서울 어느 쪼그만 정거장”에서 ‘서울’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놀랍다. 당시에에는 케이쵸[京城]가 정식 명칭이었다. 윤동주는 어떻게 서울이란 단어를 썼을까. ‘서울’이라는 명칭의 유래를 학계에서는 신라시대 때부터로 본다. 서울이라는 말의 유래는 신라의 수도인 경주를 서라벌(徐羅伐)·서벌(徐伐)·서나벌(徐那伐)·서야벌 등으로 불려진 데서 비롯되었다.⁸⁾ 이것이 도읍의 명칭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이름들은 수도(京)를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 그것이 오늘날의 서울이라는 말로 변하게 되었다.

『용비어천가』에 보면, 지금의 서울지역을 백제시대(기원전18~475년)에는 위례성 혹은 한산으로 부른다. 고구려시대에는 남평양(南平壤), 757년 북한산군 통일신라시대에는 한산주(漢山州), 한주(漢州), 한양군(漢陽郡), 1308년 고려시대에는 양주(楊州), 남경(南京), 한양주(漢陽州), 한양(漢陽)은 지금의 북한산인 한산(漢山)의 남쪽 일대를 가리키는 지명으로 고려시대부터 통용되었다. 1394년 조선은 한양을 도읍으로 정하고 한양(漢陽)이라 하고, 1395년 한성부(漢城府)가 설치되면서 한성(漢城)이라 하기

8) 정구복, 「서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1995. 이후 ‘서울’의 명칭에 관한 유래는 이 자료를 요약하여 서술했다.

도 했다.⁹⁾

1910년 ‘병합’ 이후 한국을 통치해왔던 조선총독부는 1925년 가을, 남산 위에 웅장한 신토(神道)의 신사(神社), 조선신궁을 세운다. 조선왕조 시대에 남산은 사실 도시의 남쪽 끄트머리 지역에 불과했다. 일제는 한성 지역과 대비하여 ‘남산’ 지역을 강조하면서 게이조(京城)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한다.¹⁰⁾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은 서울 지역을 경성부(京城府)라고 개칭하고 경기도에 예속된 하위 관청으로 격하시켰고, 경성부리는 표현은 공식화되었다. 일제는 서울의 거리와 동 이름을 마치[町]·초매[丁目]처럼 일본식 이름으로 행정 구역을 개편했다.

윤동주가 1942년 5월 13일에 「사랑스런추억」에서 ‘서울’이라고 쓴 것은 독특해 보인다. 다만 그보다 먼저 시에서 ‘서울’을 쓴 시인들이 있다고 차성환 교수는 제시한다.¹¹⁾

“이것은 1930년대의 서울/ 늦은 가을 어느 밤거리의 점경./ 기쁨과 슬픔이 교착되는 네거리에는/ 사람의 물결이 쉬임없이 흐르고 있다.”(박팔양, 「점경(點景)」, 『중앙』, 1933.11)

“우리 엄마가 나를 갖이는 때 이 노큰마니는 어니밤 크나큰 범이 한 마리 우리 선산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는 것을 우리엄마가 서울서 시집을 온 것을 그리고 무엇 보다도 내가”(백석, 「넘언집 범같은 노큰마니」, 『문장』 1권 3집, 1939.4)

“서울서두 가장 싸고 가장 너출”(이용악, 산문 「전달(蠶)」, 『동아일보』, 1940년 8월 4일)

시뿐만 아니라, 1940년 한 해의 『동아일보』를 검색하면 284회, 『조선일보』는 388회가 나올만치 보통 쓰이던 용어였다. 오히려 일제강점기에는 게

9) 김기빈, 『600년 서울, 땅이름 이야기』, 살림터, 1993. 12~13쪽.

10) 토드 A. 헨리, 김백영 외 번역, 『서울, 권력 도시』, 산처럼, 2020. 22~23쪽.

11) 2022년 11월 19일에 열린 정기학술대회에서 다양한 예시를 전해준 차성환 교수에게 감사드린다.

이조[京城]이라는 단어를 썼을 것이라는 추측과는 다르다. 다만 게이조라는 단어는 1940년 한 해에 『동아일보』에는 4,317회, 『조선일보』에는 3,766회나 쓰였다. ‘서울’이란 지명보다 ‘경성’이란 지명이 10배 이상 쓰인 것은 확실하다.

박팔양, 백석, 이용악, 윤동주처럼 서울 출신이 아닌 시인들이 왜 게이조라고 쓰지 않고 ‘서울’이라고 썼을까. 윤동주 등 이들이 ‘서울’이라고 부른 것은 ‘게이조’라는 제국의 공식명칭을 쓰지 않은 것은 신토이즘의 신사를 강조하는 일본식 메트로폴리스 호칭을 거부한 것으로 봐야 할까. 쉽게 내릴 수 없는 판단이다. 이 문제는 조금더 자료를 모아 다음 기회에 판단해 보고자 한다.

윤동주가 ‘서울’이라고 썼던 명칭은 해방이 되고 1년 뒤에야 1946년 8월 15일 서울헌장에서 서울특별자유시로 명기된다.

3. 서울 어느 쪼끄만 정거장

서울 “어느 쪼끄만 정거장”이 어디일지 궁금했다. 추정이 아니라 확실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먼저 이 시에 나오는 ‘나’가 윤동주 자신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윤동주 시에서 ‘나’는 작가 자신을 떠올리게 한다. 첫째, 「서시」, 「참회록」처럼 자기고백적인 시가 화자와 작가를 동일인물로 생각하게 한다. 둘째, 거의 모든 시의 말미에 쓴 창작 일시의 내용이 일기처럼 윤동주의 삶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동주와 시에 나오는 ‘나’가 동일 인물이 아닌 작품도 있다. 다만 「사랑스런추억」시에 나오는 ‘나’는 윤동주일 가능성이 크다. 물론 ‘나’를 윤동주가 아닌 당시 도쿄로 유학한 어떤 조선인 유학생으로 상상할 수도 있겠지만, 시의 내용과 일시가 윤동주의 생애와 맞기에 시의 화자와 시의 작가를 동일인물로 보아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

둘째는 그 정거장에 윤동주가 자주 갔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윤동주가 자주 간 정거장 서울 근교의 작은 정거장을 찾아 봐야 한다. 적어도 두 가지 근거가 윤동주의 일상에 맞아야 “어느 쪼끄만 정거장”이 어디인지 추정 내지는 확정할 수 있을 것이다.

윤동주가 자주 가던 정거장은 어느 역일까. 윤동주가 서울에서 머문 곳은 여섯 군데 이상이다. 연희전문에 입학하여 ①핀슨홀 기숙사에서 지내고 2학년 때인 1939년에는 ②신촌, ③북아현동과 ④서소문에서 하숙했고, 3학년 때 다시 ⑤기숙사로 돌아간다. 4학년 때인 1941년 5월 초 정병욱과 함께 기숙사를 나와 ⑥누상동 9번지 김송의 하숙집에서 머문다. 산문 「중시」에는 “생활을 더 알기 위해 성문 안으로 들어가 살기로 했다”는 문장이 나온다. 태평양전쟁 발발 이후 기숙사 식사가 변변치 않았기 때문이기도 했다.

이제 이들 주거 지역에서 윤동주가 인상 깊게 기록에 남긴 역을 확인해 봐야 한다. 윤동주의 산문 「중시」(1941)에서는 ‘전차’가, 「사랑스런추억(追憶)」에서는 ‘기차’가 중심 소재로 등장한다. 윤동주는 누상동 9번지에서 지금의 광화문길을 전차로 타고 내려가, 남대문과 경성역을 거쳐, 터널을 지나 신촌역 쪽으로 가는 “매일같이 이 자국을 났”는 등하곶길을 반복하여 오간다.¹²⁾

“기차는 아무 새로운 소식도 없이”라고 했으니 전차역이 아니라 기차역이다. 남대문역 등 전차역은 이 시에 나오는 역이 아니다. “어느 쪼끄만 정거장”이라 했으니 경성역도 아니다. 윤동주의 산문에서 주목되는



자료3. 아현리역의 흔적

12) 김응교, 『나무가 있다-윤동주 산문의 숲에서』, 아카넷, 2019. 52쪽.

역은 아현리역(자료3)이다. 경성역에서 신촌역으로 가다가 운동주는 복선 철도를 놓는 노동자들을 목격한다.

터널을 벗어났을 때 요즈음 복선공사(複線工事)에 분주한 노동자들을 볼 수 있다. 아침 첫차에 나갔을 때에도 일하고, 저녁 늦차에 들어올 때에도 그네들은 그대로 일하는데 언제 시작하여 언제 그치는지 나로서는 헤아릴 수 없다. 이네들이야말로 건설의 사도(使徒)들이다. 땀과 피를 아끼지 않는다.¹³⁾

경성역에서 떠나자마자 들어가는 터널은 현재 추계예대 가는 길 도로에서 볼 수 있는 아현터널이다. “터널을 벗어날 때” 당시 복선철도 공사를 하는 노동자

를 보았다고 했으니, 터널을 벗어나자마자 어떤 역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현 터널에서 나오자마자 있는 역



자료4. 맨 오른쪽이 소화 17년 1942년 『만주지나 기차시간표』 7월호, 가운데가 소화 19년 1944년 가을 조선총독부 교통국에서 낸 『조선철도 시간표』

은 당시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섬식 플랫폼만 남아 있는 아현리역이다. 아현리역은 “나는 플랫폼에 간신(艱辛)한 그림자를 떨어뜨리고, /담배를 피웠다.”는 구절처럼 승객이 역에 내릴 수 있는 역이었을까. 이제 아현리역이 운동주가 「사랑스런추억」의 배경인지 확인해봐야 할 차례다.

13) 운동주, 「종시」(1941), 김웅교, 위의 책, 21~22쪽.

둘째, 서울 근교의 작은 정거장을 찾아봐야 한다.

물건을 싣고 부리는 기차역이 아니라, 승객이 타고 내리는 기차역을 찾아야 했다. 2012년 12월 21일 후쿠오카대학에 갔다가, 당시 후쿠오카대학에서 근무하던 구마키 쓰토무[熊木勉] 교수¹⁴⁾의 도움으로 후



자료5. 경성역 주변의 기차역들

쿠오카대학 도서관에 있는 당시 조선철도 시간표 책 세 권(자료4)을 열람했다.

소화 17년 1942년 『만주지나 기차시간표』 7월호, 소화 19년 1944년 가을 조선총독부 교통국에서 낸 『조선철도 시간표』, 두 권의 안내서가 윤동주가 기차를 탔던 기간의 기차 시간을 보여준다.

『조선철도 시간표』(자료5)를 보면 경성역 근방의 역들이 표기되어 있다. 북쪽으로는 경성역에서 서소문역, 신촌역, 수색역, 능곡역, 일산역, 금촌역, 문산역 등으로 오늘날 경의선과 비슷하다. 문제는 여기에 아현리역이 없다는 사실이다. 왜 아현리역이 없을까.

『만주지나 기차시간표』를 보면 아현리역이 지도상에 없는 이유를 알 수 있다. 이 자료에는 경성역에서 출발하는 경의선에는 서소문역, 아현리역, 신촌역, 수색역, 능곡역, 일산역 등 이름이 있다. 승객이 타고 내리는

14) 논문이나 줄지를 낼 때마다 귀한 조언과 자료를 주시는 구마키 쓰토무(현재 텐리대학) 교수님께 여기에 감사를 포함합니다.

기차 시간은 모두 정차와 출발 시간에 쓰여져 있다. 승객이 안 타고 짐만 부리는 하역 기차역은 막대기 표시(┆)만 있다. 가령 시간표(자료6)의 맨 아래 있는 경성역에는 시간이 모두 쓰여져 있다. 그러나 서소문역과 아현리역에서는 막대기 기호만 있다. 승객이 타고 내리는 역이 아니라는 뜻이다. 서소문역이나 아현리역은 “나는 플랫폼에 간신(艱辛)한 그림자를 떨어 뜨리고, /담배를 피웠다.”는 행동을 할 수 없는 역이다.

자료6. 맨아래 경성역부터 그 위로 서소문, 아현리, 신촌, 수색 등이 쓰여 있다.

미즈노 나오키(水野直樹) 교수는 이 책 『만주지나 기차시간표』를 검토하여 송몽규가 교토에 갔을 길과 시간을 추론해낸다. 당시 교토대학 문학부 사무실에 2월 15일자로 작성한 지원자 명부에 송몽규 이름이 있으니 적어도 13일에는 경성에서 출발한 것으로 추론한다.

1942년 당시의 열차시각표에 따르면 13일 23시 01분 경성역에서 출발하는 급행열차를 타면 14일 7시 35분에 부산잔교역 도착, 9시 30분 출발 부관연락선으로 18시 15분 시모노세키항 도착, 20시 30분 시모노세키역에서 출발하는 도쿄행 특별급행으로 15일 7시 32분에 교토역에 닿을 수 있었다.¹⁵⁾

이와 같은 방식으로 시간표를 검토하면 윤동주의 일본행도 추적할 수 있다. 경성역과 아현리역을 제하고 보면, 「사랑스런추억」에 나오는 쪼그만

15) 水野直樹, 「일본 유학시절의 윤동주와 송몽규」,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연세학풍연구소 편, 『윤동주와 그의 시대』, 해안, 2018. 199쪽.

정거장은 사람이 타고 내렸던 신촌역일 가망성이 가장 크다. 운동주에게 ‘신촌역’은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가 쓴 산문 「종시」를 보면 그의 생애사적으로 ‘신촌역’이 통학의 길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역으로 이 시 「사랑스런추억」이 운동주에게 ‘신촌역’이 자기성찰의 공간이었다는 것을 강변한다.

이 역에서 화자는 “나는 플랫폼에 간신(艱辛)한 그림자를 떨어뜨리고,”라고 표현했다. 여기서 ‘나’의 분신인 그림자를 “떨어뜨리고”라는 표현은 5연 뒤에 이어질 디아스포라의 운명을 예감하게 한다. “원래의 장소에서 뿌리 뽑혀 내동댕이쳐지는 경험은 근대가 무수한 이들의 기억 속에 남긴 근본적인 충격이기도”¹⁶⁾ 했다.

4. 희망과 사랑의 잔혹한 낙관주의

정거장에 있는 승객에게 기차는 희망이고 사랑이다.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멀리서 기차가 다가오면 반갑다. 기차를 타고 가면 가족이나 친우를 만나 희망과 사랑을 나눌 수 있다. “희망과 사랑처럼 기차를 기다려”라고 쓰여 있는데, 운동주에게 희망과 사랑처럼 기차를 기다린 적은 언제일까. 정병욱의 증언을 읽어보자.

하학 후에는 기차편을 이용하였고, 한국은행 앞까지 전차로 들어와 충무로 책방들을 순방하였습니다. 지성당, 일한서방 등 신간 서점과 고서점을 돌고 나면, 음악다방에 들러 음악을 즐기면서 우선 새로 산 책을 들춰 보기도 하였습니다.¹⁷⁾

16) 김현경, 앞의 책, 282쪽.

17) 정병욱, 「잊지 못할 운동주 형」, 『바람을 부비고 서 있는 말들』, 집문당, 1980,

이 글을 보면 정병욱과 운동주는 하학 후에 경성 시내를 가서 여러 서점을 다니고 음악다방에 가서 “음악을 즐기면서” 도시산책자의 즐거움을 누리는 장면이 나온다. 적어도 이 시간에는 사랑과 희망으로 기차를 기다렸을 것이다. 이보다 더욱 궁극적인 사랑과 희망의 기차 이야기는 산문 「종시」(1941)에 보인다. “종점(終點)이 시점(始點)이 된다. 다시 시점이 종점이 된다.”는 「종시」의 첫 문장은 등하교길을 반복하는 운동주의 모습을 보여준다. 아침에 떠날 때 전차를 탔던 현저동 종점이 아침에는 시점이 되었다가 하교 후 돌아오면 종점이 되는 것이다. 그만치 운동주에게 기차는 가까운 운송수단이었다. 「종시」를 읽으면 그가 사랑과 희망으로 정말 가고 싶은 여행지가 나온다.

이제 나는 곧 종시(終始)를 바꿔야 한다. 하나 내 차에도 신경행, 북경행, 남경행을 달고 싶다. 세계일주행(世界一周行)이라고 달고 싶다. 아니 그보다도 진정한 내 고향이 있다면 고향행(故鄉行)을 달겠다. 다음 도착하여야 할 시대(時代)의 정거장이 있다면 더 좋다

「종시」의 마지막 문단을 보면 그가 당도하고 싶어하는 “다음 도착하여야 할 시대(時代)의 정거장”이 나온다. 학교 수업을 마치고, 시내로 가서 서점과 음악다방을 순례하기로 약속했다면, 이곳으로 향하는 기차라면 그는 희망과 사랑으로 기차를 기다렸을 성싶다. 자기가 있는 곳을 지나치게 좋아하면 ‘병적 토포필리아’라 할 수 있겠다. 가령 내 침대가 아니면 다른 곳에서는 절대 못 자는 증상도 일종의 ‘병적 토포필리아’다. 정병욱이나 운동주가 경성 시내의 서점과 음악다방을 즐긴 것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 시간을 즐긴 것은 확실하다.

“희망과 사랑처럼 기차를 기다려”라는 문장이 혹시 일본 유학을 간다는

설렘이 아닐까, 물을 수도 있겠다. 왜 일본 유학을 결심했는지 윤동주의 글에서 그 명확한 동기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일본 유학을 왜 하려 했을까, 질문할 수밖에 없는 표현들이 그의 시에 나온다.

윤동주는 1942년 1월 29일 ‘창씨개명계’를 연희전문에 제출한다. 그 닷새 전에 「참회록」(1942.1.23.)을 쓰며 괴로워 한다. 그가 「참회록」에서 하이픈(-)을 긋고 쓴 문장만 인용해 보자.

— 만 이십사 년 일 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문장 앞에 그은 하이픈(-)은 가장 내밀한 독백이라는 표시일 것이다. 기쁨이 없고, 부끄러운 고백을 「참회록」에 쓴 그에게 일본행 유학이 무슨 희망이고 사랑이 될까. 「참회록」의 육필 원고를 보면 여백에 ‘생존(生存)’, ‘생활(生活)’, ‘힘’ 등의 낙서가 어지럽게 쓰여 있다.

이제까지 연구는 창씨개명을 하지 않으면 일본에 유학 갈 수 없다는 논리였지만 미즈노 나오키 교수는 그 논리를 뒤엎는다. 창씨개명을 하지 않고서도 일본 대학에 유학한 조선인 학생들 이름이 여러 대학 유학생부에 나오기 때문이다. 윤동주와 송몽규의 경우는 특이했다. 가족들이 이미 창씨개명을 했기에 호적과 학적부의 이름이 통일되지 않은 상태였다. 대학에 호적과 학적부에 쓰인 이름이 같아야 입학할 수 있기에 윤동주와 송몽규는 어쩔 수 없이 창씨‘개명’이 아닌 창씨‘신고’를 했다는 것이 미즈노 나오키 교수의 주장¹⁸⁾이다. 그 행위가 생존하기 위한 것이고, 생활하기 위한

18) 水野直樹, 「윤동주는 ‘창씨개명’을 했는가」, 류양선 엮음, 『윤동주 시인을 기억하며』, 다시올, 2015. 198~202쪽.

것이라며 스스로 탄식하는 낙서일 것이다. 「사랑스런추억」에 등장하는 기차는 희망이나 사랑을 전해주지 않는다. 그 반대다.

기차는 아무 새로운 소식도 없이

나를 멀리 실어다주어,

(중략)

오늘도 기차는 몇 번이나 무의미하게 지나가고,

현실에서 기차는 새로운 소식도 전해주지 않고, 의미없이 지나갈 뿐이다. 그렇다면 “희망과 사랑처럼 기차를 기다려”라는 말은 기차를 기다리는 승객의 보편적인 마음 상태 혹은 보다 근본적인 마음 상태를 쓴 표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시를 쓰기 하루 전인 5월 12일에 쓴 시는 「흐르는거리」다. ‘흐르는거리’는 「사랑스런추억」에 나오는 무의미하게 지나가는 기차와 이어진다. 어찌면 무의미하게 지나가는 기차를 탄 화자가 차창밖으로 도쿄 시내를 보면 ‘흐르는 거리’로 보일 것이다. 실제로 운동주가 살았던 하숙집 앞에 있는 다카다노바바 역에서 도쿄 순환선인 야마노테선, 2층 정도 높은 언덕을 달리는 야마노테선을 타서 차창 밖을 보면 도쿄 시내가 마치 흐르는 거리로 보이기도 한다.

오스럼히 안개가 흐른다. 거리가 흘러간다. 저 전차(電車), 자동차(自動車), 모든 바퀴가 어디로 흘러워 가는 것일까? 정박(定泊)할 아무 항구(港口)도 없이, 가련한 많은 사람들을 싣고서, 안개 속에 잠긴 거리는,

-운동주, 「흐르는거리」1연

전차(電車), 자동차(自動車)를 들어 “모든 바퀴가 어디로 흘러워 가는 것일까?”라고 화자는 묻는다. “정박(定泊)할 아무 항구(港口)도 없이” 실려

가는 가련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포함한 디아스포라이며, 난민이며, 혹은 징용이나 강제노역으로 “홀리워 가는” 사람들일 것이다. 어디론가 홀리워 가는 사람들, 정박한 항구도 없이 실려가는 사람은 희망과 사랑에 들뜬 사람들이 아니다. 이런 난민의 모습은, 희망과 사랑으로 기다리는 기차와 달리, 새로운 소식도 없이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기차의 모습과 겹친다. “홀리워 가는”이라는 사역동사를 볼 때, 이 시는 탈주의 이미지와는 차이가 있다.

정병욱은 윤동주가 “오장환의 「The Last Train」도 자주 읊었다”¹⁹⁾고 증언했는데, 이 증언을 모티프로 정우택은 「사랑스런추억」을 탈주의 이미지가 있는 오장환의 「The Last Train」과 비교한다. “저무는 역두(驛頭)에서 너를 보냈다./비에(悲哀)야!//개찰구에는/못쓰는 차표와 함께 찍힌 청춘의 조각이 흩어져 있고/병든 역사(歷史)가 화물차에 실리어 간다.//대합실에 남은 사람은/아직도/누굴 기다려”(「The Last Train」) 부분을 윤동주의 「사랑스런추억」만 비교하는 연구²⁰⁾는 의미있는 시도다.

그의 글에서 그가 원하는 희망과 사랑을 찾는다면 산문 「終始」에 나오는 구절을 떠올릴 수 있겠다.

“아니 그보다는 眞正한 내 故郷이 있다면 故郷行을 달겠다. 倒着하여야 할 時代의 停車場이 있다면 더 좋다.”²¹⁾

「사랑스런추억」에 쓰여 있는 “희망과 사랑처럼 기차를 기다려”는 “진정한 내 고향”과 “도착하여야 할 시대의 정차장”을 향한 시적 주체의 기대와 열망을 표현한다고 봐야 한다.²²⁾ 그러나 그 희망과 사랑의 정차장에 도착하기는 요원하다. 식민지 시대에 오지 않는 희망을 걸며, 눈에 보이지 않는 잔혹하게 기다리는 상황을 ‘잔혹한 낙관주의’(Cruel Optimism)²³⁾라고

19) 정병욱, 「고 윤동주 형의 추억」, 『연희춘추』, 1953.7.15.

20) 정우택, 위의 책, 363~371쪽.

21) 윤동주, 「중시」(김웅교, 『나무가 있다』, 위의 책).

22) 장철문, 앞의 글, 57쪽.

명명한다. 이 참혹한 기다림, 이 참혹한 절규야말로 잔혹한 낙관주의이다. 식민지 시대에 해방을 꿈꾸는 것은 위험하다. 걸렸다 하면 잔혹한 일을 당할 수도 있다.

또한 운동주가 기차처럼 올 희망과 사랑이 아니라 “희망과 사랑처럼 기차를 기다려”라고 쓴 독특한 직유법도 주목해 보아야 한다.

운동주에게 ‘~처럼’은 쉬운 초보 수사법이 아니라, 독자에게 상상의 노동을 권하는 독특한 수사법이다. 아침처럼 올 시대가 아니라 “시대처럼 올 아침”(『쉽게쓰워진詩』)이라고 쓴 것과 마찬가지로. 보통 구체적인 것으로 추상적인 것으로 표현하는데 운동주는 반대다. “사랑처럼 슬픈 얼굴”(『소년』)이라고도 썼다. 사랑이란 추상적인 것이고, 슬픈 얼굴은 구체적인 것이다. 도대체 사랑이 왜 슬픈 것인지 생각하는 지점에서 상상력이 융기(隆起)한다.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다”도 마찬가지다. 추억처럼 무엇인가 있다는 문장이 명확하지 않다. 독자는 상상해야 한다.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게외다”도 마찬가지, 상식적인 장치를 전복시키는 낯설게하기(defamiliarization)다. 단순한 직유법을 암시(暗示)의 경지로 끌어올리는 기법이다.

“나는 플랫폼에 간신히 그림자를 떨어뜨리고, / 담배를 피웠다.”라고 처음 구두점을 찍은 여기까지가 1단락이다. 간신히(艱辛)은 힘들고 고생(苦生)스럽다는 뜻이다. 플랫폼에 그려져 있는 자신의 그림자가 힘들고 고생스럽게 보인다는 것이다. 화자인 운동주 자신이 바닥에 늘어져 있는 그림자처럼 지쳐 있는 상태를 말한다. 플랫폼을 빼고 읽으면 ‘나는 간신히 그림자(지친 나)를 떨어뜨리는 분리 상태가 일어난다. 이런 분리는 운동주가 자

23) 김웅교, 『나무가 있다』, 위의 책, 132쪽. ‘잔혹한 낙관주의’의 반대는 ‘비겁한 낙관주의’이다. 가령 친일을 하건, 히틀러에게 충성을 맹세한 지식인, 종교인 등은 권력을 따르며, 눈에 보이지 않는 잔혹한 낙관주의를 포기한다. 그들의 낙관주의는 ‘비겁한 낙관주의’(cowardly optimism, 본 회퍼, 『옥중서신』)라 할 수 있겠다.

신을 대자(對自)로 하여, 자신을 마주하며 자아성찰 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우물 물 앞에서 자신을 분리시켜 우물 속의 사나이(「자화상」)으로 보는 방식과 유사하다.

담배는 의미없는 낭만일까. 담배는 미래에 대한 초조한 마음을 상징할 수도 있다. 담배를 피웠다는 윤동주의 주량과 흡연은 어느 정도였는지 동생의 증언이 있다.

“술은?”

“먹는 것 못 보았습니다.”

“담배는?”

“집에 와서는 어른들 때문에 피우는 것 못 보았습니다.”²⁴⁾

동생 윤일주와 정지용이 나누는 대화다. 동생 앞에서 담배 피지 않았던 모양이다. 그냥 포즈로 쓴 표현일까. 희망과 사랑으로 기차를 기다리지만, 일본으로 가려는 그는 지친 그림자를 보며 초조하다.

내 그림자는 담배 연기 그림자를 날리고,
비둘기 한 떼가 부끄러울 것도 없이
나래 속을 속, 속, 햇빛에 비취, 날았다.

“내 그림자는 담배 연기 그림자를 날리고”라는 그의 내면은 그림자다. 비둘기 한떼는 나래(날개) 속에 부끄럼 없이 햇빛을 품고 날았다. “나래 속을 속, 속, 햇빛에 비취, 날았다”는 표현은 희망과 사랑이 있는 세계를 상징한다. 아쉽게도 하늘의 존재인 비둘기에 비해, 반면 화자는 그림자에 불과하다. 여기 3연까지 ‘옛거리에 있는 나’를 회상하는 한 묶음이다.

24) 정지용 「서문」(1947.12.28),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정음사, 1948.

5. 과거에 있는 희미한 구원

5연부터 도쿄에 있는 나의 독백이다. “봄이 오던 아침”을 회상했지만, 이제는 “봄은 다 가고” 있다.

“기차는 아무 새로운 소식도 없이/나를 멀리 실어다주어,”라는 말은 디아스포라의 쓸쓸함을 보여준다. 나그네가 한풀이 하듯 5연은 행갈이 없이 한 행으로 길게 풀어 썼다. 지금 도쿄 하숙방에 있는 화자는 옛 거리에 남은 나를 희망과 사랑처럼 그리워한다.

“봄은 다 가고—동경(東京) 교외 어느 조용한 하숙방”은 현재 일본 점자도서관(Japan



자료7. 다카다노바바 역 앞에 있는 운동주 하숙집 위치

Braille Library, 자료7)이 있는 곳으로 도쿄도 신주쿠구 다카다노바바 1초메 23-4 지역이다. 릿쿄대학보다는 와세다대학에서 가까운 곳이다. 지금 도쿄 도청이 있는 신주쿠구에 있는 하숙집을 ‘동경 교외’라고 표현한 것이 지금 시각에서는 이상하지만, 1950년대까지도 신주쿠, 이케부쿠로, 시부야는 3대 부도심이었다. 천황이 사는 황거(皇居)가 있는 치요다구를 중심에 두고 볼 때 당시 다카다노바바 지역은 원도심에서 떨어져 있는 부도심이었다.

서울의 지하철 2호선처럼 도쿄에는 1925년 야마노테선이라는 도쿄 순환선이 건설되었다. 릿쿄대학이 있는 이케부쿠로역은 운동주의 하숙집이 있는 다카다노바바역에서 메지로역 다음에 있는 두 번째역이다. 거리는

2.6킬로로 걸어가면 30분 정도 걸린다. 운동주 당시에도 있었던 전철이나 자전거를 타면 학교까지 20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다. 하숙집에서 가까운 다카다노바바역 플랫폼에 갔다가 지나가는 전철을 보면 서울에서 마지막으로 떠났던 신촌역을 떠올린 것이 아닐까.

“옛 거리에 남은 나를 희망과 사랑처럼 그리워한다.”는 문장을 보았을 때, 도쿄의 하숙방에 있는 ‘나’는 희망과 사랑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화자는 여기 일본에 왔으나, 이내 저기 서울을 지향하고 있다. 서울이 토포 필리아라면, 도쿄는 그 반대편이나 애매모호한 공간이다.

“오늘도 나는 누구를 기다려”라고 했는데 그가 기다리는 대상은 무엇일까. 그는 단순히 기차를 기다렸을까. ‘옛 거리에 남은 나’를 기다리는 것이다. ‘옛 거리’ 곧 과거의 순간을 기다린다.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 1892~1940)은 “과거는 그것을 구원으로 지시하는 어떤 은밀한 지침(指針)을 지니고 있다”고 했다. 과거를 회상하는 것은 퇴행적인 복고주의가 아니다. “벤야민은 과거 세대의 사람들과 우리(현재-인용자) 사이에는 은밀한 약속이 있는 셈이다.”라고 썼다. 벤야민은 과거를 다시 복기해야 할 이유를 쓴다.

우리에게는 우리 이전에 존재했던 모든 세대와 희미한 메시아적 힘이 함께 주어져 있는 것이고, 과거는 이 힘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²⁵⁾

‘희미한 메시아적 힘’(eine s c w a c h e messianische kraft)이 과거에 있다고 벤야민은 강조한다. ‘희미한’을 강조하려고 원문을 보면 알파벳 한 자씩 모두 띄어썼다. 가령 그 희미한 메시아적 힘은 유대인에게는 이집트에서 탈출한 힘일 것이다. 운동주에게는 『맹자』나 『성경』에서 얻은 희미한

25) Walter Benjamin,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1940),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 · 폭력비판을 위하여 외』, 도서출판길, 2009. 332쪽.

힘 혹은 신앙일 수도 있다.

윤동주는 「사랑스런추억」과 비슷한 시기에 쓴 「쉽게씩워진詩」의 한 구절을 보면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린다고 썼다. 다시 강조하지만, 윤동주가 과거의 나를 기억한다는 것이 퇴행적 복구주의가 아니라, 과거가 갖고 있는 희망의 사랑의 힘에서 시대의 어둠을 몰아낼 꿈을 꾸고 있다는 말이다.

사뮈얼 바클레이 베크트(Samuel Barclay Beckett, 1906~1989)이 쓴 2막의 부조리극 『고도를 기다리며(Waiting for Godot)』(1953)의 주제는 ‘기다림’이다. 이 작품에서 두 남자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이 등장한다. 연극에서는 ‘디디’와 ‘고고’라는 별명만 나온다. 디디와 고고는 작은 나무 옆에서 ‘고도’라는 인물을 기다리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다.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고도(Godot)야말로 희망이고 사랑일 것이다. 베크트는 이 작품을 통해 2차 세계대전 이후 인간의 실존적인 절망을 표현했다. 베크트의 기다림과 윤동주의 기다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모든 시의 기다림이 베크트의 기다림과 같다고 볼 수는 없다. 베크트가 기다리던 고도나 윤동주가 기다리던 희망과 사랑은 가장 절망스런 상황에서 ‘오지 않는 희미한 희망’을 기다린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윤동주는 그 기다림의 언저리에서 서성거린다.

오늘도 나는 누구를 기다려 정거장 가차운
언덕에서 서성거릴 게다.

7연에서 기다림과 서성거림은 다르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그는 ‘언덕에서’ 서성거린다. 언덕이란 말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야마노테선 다카다노바바역은 언덕처럼 도로 위에 솟아 있다. 역 플랫폼에 올라가면 주변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같은 공간이다.

윤동주는 그 언덕에서 그는 서성거린다. 윤동주 시에는 ‘언덕’이 자주

등장한다. 거지아이들을 만난 곳도 언덕(「투르게네프의 언덕」)이고, 바람을 마주 하는 “내 발이 언덕 위에”(「바람이 불어」) 서 있고,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 흙으로 덮어버리”(「별 헤는 밤」)는 언덕에서 그는 성장한다. 그에게 언덕은 너머를 깨닫게 하는 소담한 장소다. 아니면 자신이 속한 안정된 장소를 찾지 못한 사람들이 불안하게 서성이는 공간이다.

‘장소’를 갖지 못한 사람들, 즉 자신들이 속한 곳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곳이 어디인지 알 수 없는 사람들, 또는 그들이 머물러도 좋은 자리, 점유할 수 있는 위치를 이 세계 안에서 발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장소상실(placelessness)은 한때 특정한 범주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예외적인 상황으로 인식되었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²⁶⁾

자신이 사랑할(philía) 장소를 갖지 못한 사람들은 디아스포라이거나 난민(難民)이거나 강제로 이송된 사람들이다. ‘필리아’의 반대말은 ‘포피아’(phobia)다. 감옥 등 갇혀 있는 공간을 두려워 하는 증상을 아고로포피아(agoraphobia) 즉 공간 공포증이라고 한다. 도쿄는 아직 그에게 공포의 공간은 아니지만, 거주할 장소가 아닌 장소상실의 공간이다. 윤동주는 정주 못할 ‘장소상실의 공간’에서 서성인다. 윤동주는 일본으로 상징되는 “육첩방은 남의 나라”(「쉽게씩워진詩」)라고 규정했다.

일시적 순간, 영원한 구원을 과거에서 찾았던 발터 벤야민도 그랬듯이, ‘젊음’은 삶이 출발하고 돌아오는 정거장이기에 남아 있어야 한다. 구원과 영원을 젊음에서 찾는 마무리는 어설픈 너스레 없이 예언처럼 전율스럽다.

“-아아 젊음은 오래 거기 남아 있거라.”라는 마지막 독백은 길으로는

26) 김현경, 앞의 책, 281~282쪽.

한스러운 탄식으로 볼 수도 있겠다. “아아”라는 감탄형은 탄식이면서도 ‘여기’가 아니라 ‘거기’에 젊음 혹은 구원이 있다는 깨달음의 표현이기도 하다. 속으로는 과거에서 구원을 찾는 너무도 희미한 희망으로 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겉으로는 절망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과거의 순간을 들어 미래로 나아가려는 실존주의자의 기투(企投)로 볼 수도 있겠다.

6. 역설적인 낙관주의 - 결론

이 글에서 운동주 시 「사랑스런추억」을 새롭게 접근해 보았다. 시에 나오는 장소를 검토해보며 새롭게 해석해 보았다. 조그만 정거장이 신춘역일 가능성을 찾아 보았다. 운동주는 릿쿄대학에 입학했지만 자유를 찾기는커녕 제국주의에 빠진 학장의 지시로 머리를 깎고 군인처럼 지내야 했다. 그는 이 상황에서 그나마 숨통이 트였던 한국에서의 시간을 회상한다.

	시	장소	세월	화자	기차의 의미
서울의 작은 정거장	1 ~ 3연	거기 토포필리아	“봄이 오던 아침”(1연)	젊음	“희망과 사랑처럼 기차를 기다려”(1연)
이동성 (mobility)	4연	↓	↓	↓	“기차는 아무 새로운 소식도 없이 나를 멀리 실어다주어,”(4연)
도쿄의 조용한 하숙방	5 ~ 7연	여기 장소상실	“봄은 다 가고”(5연)	늙어감	“오늘도 기차는 무의미하게 지나가고”(6연)
이동성 자막	8연	회상	— 아아 젊음은 오래 거기 남아 있거라.		

“아아, 젊음은 오래 거기 남아 있거라”라는 말은 영화의 마지막 자막 같은 분위기를 준다. 그나마 그가 누렸던 낭만과 자유는 조선땅, 그 작은 정거장에서 서 있던 순간이었다는 것을 암시한다. 마지막 행에서 「사랑스런 추억」의 이항대립의 내면이 확연히 보인다.

서울에 있을 때는 “봄이 오던 아침”(1연)이었는데, 도쿄에 와보니 “봄은 다 가고”(5연)라는 표현은 암시적이다. ‘봄이 오던 아침’을 즐기던 나를 “기차는 아무 새로운 소식도 없이”(4연) 멀리 실어다 주었다. 그나



자료8 지금은 사라진 옛 신춘역

마 시내 산보를 하며 즐기는 등 산책자의 기쁨이 있었지만, 도쿄에서는 생활은 화사한 봄이 다 지나가버린 의미없는 일상으로 느껴진 것이다.

의미없는 곳에서 윤동주가 할 수 있는 것은 궁극적인 ‘희망과 사랑’을 기다리는 것뿐이다. ‘사랑과 희망’이야말로 윤동주가 기다리는 ‘누구’이며, 사뭇얼 베켓이 기다리던 그 고도(Godot)와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아아 젊음은 오래 거기 남아 있거라.”는 표현은 시 전체에 비극적인 낙관주의, 혹은 잔혹한 낙관주의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문장이다. 신춘역(자료8)은 희미한 구원을 되새기는 토포필리아의 공간일 것이다.

윤동주는 5월 13일에 이 시를 쓰고, 10월에 교토 도시샤대학 영문학과로 편입한다. 도시샤대학에서 송몽규와 자주 만나면서 그는 점점 역사의 늪에 빠져든다. 어쩌면 윤동주는 이 시를 쓸 때 이미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의 말대로 ‘여기’에는 젊음이 없었고, ‘거기’에 젊음이 있었던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기빈, 『600년 서울, 땅이름 이야기』, 살림터, 1993.
- 김응교, 「릿코대학 시절, 운동주의 유작시 다섯 편 - 운동주 연구 · 3」, 『한민족문화연구』, 한민족문화학회, 2012, 7-35쪽.
- _____, 「젊음은 오래 거기 남아 있거라」, 『동아일보』, 2017.12.6.
- _____, 『나무가 있다-운동주 산문의 숲에서』, 아카넷, 2019.
- 김현경, 『사람, 장소, 환대』, 문학과지성사, 2015.
- 장철문, 「대문자 운동주와 저항성의 심도(深度)-운동주 후기시의 타자인식을 중심으로」, 『비교한국학』, 국제비교한국학회, 2014.
- 정구복, 「서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1995.
- 정병욱, 「고 운동주 형의 추억」, 『연희춘추』, 1953.7.15.
- 정병욱, 「잊지 못할 운동주 형」, 『바람을 부비고 서 있는 말들』, 집문당, 1980.
- 정우택, 『시인의 발견, 운동주』,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21.
- 정지용 「서문」(1947.12.28),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정음사, 1948.
- 水野直樹, 「운동주는 ‘창씨개명’을 했는가」, 류양선 엮음, 『운동주 시인을 기억하며』, 다시올, 2015.
- _____, 「일본 유학시절의 운동주와 송몽규」,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연세학풍연구소 편, 『운동주와 그의 시대』, 혜안, 2018.
- 이-푸 투안, 이옥진 옮김, 『토포필리아-환경 지각, 태도, 가치의 연구』, 에코리브르, 2011.
- 토드 A. 헨리, 김백영 외 번역, 『서울, 권력 도시』, 산처럼, 2020.
- Walter Benjamin,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1940),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 · 폭력비판을 위하여 외』, 도서출판길, 2009.

<Abstract>

Sinchon Station, Yoon Dong-ju, Hope and Love of "Lovely Memories"

Kim, Eunggyo

In this article, I took a new approach to Yoon Dong-ju's poem "Lovely Memories." In particular, I reviewed the place in the poem and interpreted it anew. I looked for the possibility that a small station would be Sinchon Station. Yoon Dong-ju entered Rikkyo University, but instead of finding freedom, he had to cut his hair and live like a soldier under the direction of the dean who fell into imperialism. He recalls his time in Korea, where he was able to breathe in this situation.

The phrase "Ah, youth stays there for a long time" gives the atmosphere of the movie's final caption. At least, it implies that the romance and freedom he enjoyed was the moment he stood on the small station, the land of Joseon. In the last line, the inner side of the binomial confrontation of "Lovely Memories" is clearly visible.

When 'I' was in Seoul, it was "the morning when spring came" (in a row), but when 'I' came to Tokyo, the expression "spring is gone" (in a row) is implicit. "The train carried me away without any news" (4 consecutive days) while enjoying "the morning of spring." There was the joy of a walker, such as enjoying a walk in the city, but life in Tokyo felt meaningless as the bright spring has passed.

All Yoon Dong-ju can do in a meaningless place is wait for the ultimate "hope and love." Love and hope is the "who" Yoon Dong-ju is waiting for,

and the altitude that Samuel Beckett has been waiting for. The expression, “-Ah, youth remains there for a long time,” is a paradoxical expression of tragic optimism, or brutal optimism, throughout the poem. Sinchon Station (Data 8) will be a topophilia space that reflects on faint salvation.

Yun Dong-ju wrote the poem on May 13 and transferred to the Department of English at Kyoto Doshisha University in October. As he often meets Song Mong-gyu at Doshisha University, he gradually falls into the swamp of history. Perhaps Yoon Dong-ju had a hunch that the end was already approaching when he wrote this poem. As he said, there was no youth here, and there was youth there.

Keyword : Yoon Dong-ju, lovely memories, Rikkyo University, Sinchon Station, Japan.